

“광주시향 홍보 우리에게 맡기세요”

여고 교사였던 주부 지연신(55)씨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 전남대학교 박물관 대학에 다니고, 아마추어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있다. 그녀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은 남편 덕에 당달아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다. 10여년전 광주시향 정기회원권을 선물 받은 후 부부는 기회가 닿는 대로 꾸준히 광주시향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문화 예술과 일상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건 그녀의 즐거움 중 하나다. 3년여 전부터 광주시향 공연 소개와 감상평을 블로그에 꼭 올리곤 했고, 블로그 글이 인연이 돼 광주시향이 발행하는 잡지(GSO·Gwangju Symphony Orchestra)에 인터넷 기사를 실리기도 했다. 자씨는 지난 2일 발족한 광주시립교향악단 제1기 서포터즈가 됐다.

지난 1976년 시민교향악단으로 출발한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창단 40년을 맞았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광주시향이 처음으로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포터즈들은 모두 12명으로 주부, 대학생, 회사원, 블로그 운영자 등 다양하다. 이들은 1년 동안 광주시향의 공연소식, 행사, 광주시향의 인사이트 소식 등을 발굴해 광주시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향으로서 든든한 후원군을 얻은 셈이다.

“광주시향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참여하게 됐어요. 이미 블로그에 시향 관련 글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 굳이 서포터즈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좀 더 ভাল 것같이 자위하게 됐어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의 젊은 감각을 공유하고, 배우고 싶기도 했어요. 음악에는 치유 효과가 있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많

제1기 서포터즈 발족 ... 공연소식·행사 홍보대사 역할

주부·대학생·회사원·블로그 운영자 등 12명으로 구성

이 받아요. 저도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남편이 좋다고 하면 더 좋고 그 래요(웃음) 좀 더 많은 이들이 시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할 생각입니다.”

지씨는 “사람들이 음악회 티켓이 비싸서 못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 비싸지 않은 정기회원권(4만원)이면 1년 내내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 독일언어문학과에 재학중인 최혜민(21)씨는 공연 전시 기획에 관심이 많다. 언젠가 총장로에서 “광주가 문화도시 인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NO’라고 답했던 그녀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시민들의 모습이 아쉬워 서포터즈에 지원했다. 고 3까지 피아노 입

시를 준비했던 최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레슨 선생님께서 시향의 티켓을 받았고, 공연도 자주 관람했다.

“시향 서포터즈는 시민과 시향의 매개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해요. 클래식은 어렵다. 지루하다는 편견을 갖는데 이번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공연을 짜고 홍보를 하는지 많이 느꼈어요. 시향의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좋아하는 분야에서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돼 너무 좋아요.”

학교 독문학제에서 2년 동안 합창 연주를 하기도 했던 최씨는 올해 시향 일정 중 개인적으로 5월 18일 열리는 베르디의 ‘레퀴엠’ 공연이 가장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빗꽃 피는 운전저수지 등 문화회관을 찾아야만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닌, 찾아가는 시향 공연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뒤늦게 전남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남승철(34)씨는 지난해 관람한 가족음악회 팝스 콘서트가 광주시향과의 첫 만남이었다. 늦깎이 대학생이 된 터라, 그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됐다.

남씨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시향 일정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주회 참석 후에는 사진과 생생한 리뷰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서포터즈 1기에는 이들 이외에도 이주관·박혜정·송성용·최가영·신상호·이현민·김소진·김다령·이재민씨가 활동한다. www.gso.or.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꾸루꾸루’ 10일 광주극장서 ‘후쿠시마의 미래’ 감상

‘꾸루꾸루 생명평화영화관’ 아홉 번째 행사가 오는 10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희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후쿠시마 5주기와 체르노빌 30주기를 맞아 다큐멘터리 ‘후쿠시마의 미래’(2013)를 함께 감상한다.

영화는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현재를 통해 후쿠시마의 미래를 그린다.

21세기 최대의 재앙이라 불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안에 떨고 있는 후쿠시마의 광범한 시민 17명이 그 대재앙의 진원지를 직접 방문해 원전 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돌아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안쓰는 물건을 교환하는 행사도 진행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10-4635-85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문화 정체성 지키고 보편화 위해선...

전남대 유라시아연구소 ‘문화도시 광주를 위한 제언’ 펴내

전남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소장 류재한·불어불문학과 교수)가 최근 문화도시 광주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서 ‘문화도시 광주를 위한 제언’(이안)을 펴냈다.

이 연구서는 광주의 글로벌 의제인 세 가지 문화도시 프로젝트, 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동아시아문화도시 그리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구현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책은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보편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집필진으로는 유라시아연구소 소장인 류재한 교수, 윤성진 서울 한강문명 여름축제 총감독,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등 5명이 참여했다.

책에서 연구자들은 ‘광주의 핵심 콘텐츠로서 ‘광주 아트페어’의 가능성과 활성화의 당위성’(류재한), ‘글로벌 문

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구축에 있어서 도시축제의 기능’(윤성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 정원도시로서의 문화도시 광주의 방향성’(오강임), ‘창조경제를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콘텐츠시설들의 협업의 필요성’(한진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광주만의 대표 브랜드 만들기 의 필요성’(정혜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둘러싼 우려, 즉 콘텐츠(축제 등)와 인프라(문화시설과 녹색인프라 등), 문화정책 관련 우려 해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온라인 서점들 당일 배송 시간 연장 고객 확보 경쟁

온라인 서점들이 앞다퉈 당일 배송 가능 시간을 연장하며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섰다.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인 예스24는 오는 7일부터 전국의 당일 배송 주문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청주, 천안, 아산은 정오로 주문시간이 각각 1시간씩

연장된다. 앞서 인터넷서점 알라딘은 광주 당일 배송 주문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11시로 늘렸다.

인터넷서점 7일부터 전 지역에서 주문시간을 1시간씩 연장하고 교보문고도 “택배사와 배송시간 연장이 가능한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광주 여성 선언

내일 세계여성의 날

광주시청 소녀상 앞에서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지역 여성계가 ‘희망을 연결하라-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광주여성 선언을 발표한다.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받는 세상, 일상 생활 속에서 성평등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 전쟁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만들어 가기 위한 선언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 백희정·이하 광전여연)은 8일 오후1시 광주시청 소

녀상 앞에서 여성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여성폭력, 선거 관련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지역과 현재 정부의 뒷걸음 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행사다.

광주여연은 지역 여성노동자·농민을 만나는 ‘그녀들에게 힘’ 행사도 진행한다. 7일에는 광주여성민우회가 롯데백화점 여성노동자를 만나고, 광주여성의 전화가 화정동 서부시장에서 행사를 여는 등 7일과 8일 광주 전남 지역 10곳에서 만남을 갖는다.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 개관 세미나

내일, 사진작가·시민 등 참여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사진전시관과 관련, 전반적 운영에 대한 지역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를 8일 오후 2시 분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오상조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교수, 최영태 광주사진협회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사진전시관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교수들이 참여해 운영, 기획전, 대관전 등에 관한 의견을 나

눌 예정이다. 이주환 순천대 사진예술학과 교수, 선종백 광주사진협회장, 박학선 사진작가, 이정록 광주미술협회 미디어위원·사진작가가 패널로 나선다.

또 질의·응답토론 시간에는 패널 뿐 아니라 지역 사진작가, 사진애호가, 일반시민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사진전시관(562㎡ 규모)은 광주문예회관 부지에 위치한 옛 광주시립미술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광주역사 사진자료 전시 등을 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53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이스타이러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세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스텝이타이러, 방수시트, 방수방벽, 시공방법, 시공비용, 시공기간(100㎡ 기준)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스타이러, 카탈로그, 다량하고 저렴한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목조주택 2016년 1학기 개강

3월 8일(화) 저녁 7시~9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3월 9일(수) 저녁 7시~9시
국립목포대학교 (목포시 남악 캠퍼스)

3월 10일(목) 저녁 7시~9시
남부대학교 심애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예약 필수, 강의실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전담강사 010-5766-5754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H. 010-5766-5754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타 교육기관보다 체계적이고 명쾌한 실전문자 물건위주로 강의!

2016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 18(월) ~ 2016. 3. 10(목)
• 수업기간 : 2016. 3. 3 ~ 2016. 6. 9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8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 0621230-7700 ~ 2 지도교수 : 송윤옥 010-9416-1200